“삭발로 번뇌 벗어나 불제자로 첫걸음”

수원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3기
1월 11일 육화당서 삭발식 열려
총 12명 입교…젊은 참가자 다수
25일까지 보름간 승가 생활 체험

수원=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이 입교생에게 삭발의식을 행하고 있다.

스님들 앞에 입교생들이 차례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결의가 교차했다. 스님은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다른 한 손으로 가위를 들어 올렸다.

“삭발식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아니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모든 이익을 중생들에 돌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스님의 당부에 입교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내 머리카락이 잘렸고, 12명의 입교생들은 세속의 집착을 내려놓으며 불제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1월 11일 경내 육화당에서 ‘제3기 여성출가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행자 삭발식을 거행했다. 1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한국전통 승가생활 체험에 앞서 ‘무명초’라 불리는 머리카락을 잘라 수행 의지를 다지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3기 여성출가학교는 젊은 세대 참여가 두드러져 눈길을 끌었다. 입교생 총 12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MZ세대이며, 10대도 방학 기간을 이용해 2명이나 참여했다.

의정부광동고에 재학 중인 수경심(19) 입교생은 ‘출가’를 깊이 고민하던 중 학교에 붙어있던 여성출가학교 홍보 포스터를 보고 이곳을 찾았다. 수경심 씨는 “스님인 어머니께선 늘 ‘진실하게 살 것’을 일러줬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그 삶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출가학교를 선택했다”며 “대중생활에 대한 걱정도 많지만, 이 역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많이 배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교생 중 막내인 설경화(18) 씨도 “일단 부딪쳐보자”는 마음으로 체험을 결심했다. 설경화 씨는 “템플스테이에 가고 싶었는데 나이가 어려서인지 부모님이 반대했다. 그런데 이번엔 출가학교 광고가 실린 신문을 보고 어머니가 먼저 권유했다”며 “싱잉볼 명상으로 잡생각을 떨치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삼귀의·반야심경 봉독과 본격적인 삭발식이 이어졌다. 부처님 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장궤합장한 12명의 입교생 가운데 1명이 삭발했고, 11명은 부분 삭발로 의미에 동참했다.

머리카락을 잘라준 스님들은 입교생들이 수행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서원했다.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은 “삭발은 일체 악을 끊고, 복과 지혜를 닦는 수행”이라며 “수행한다는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수행을 통해 얻는 에너지를 모든 사람에 베풀어 모두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 서원이 반드시 삭발 의식에 깃들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노란색 행자복으로 맞춰 입은 입교생들은 자른 머리카락이 담긴 봉투를 삭발탑 아래 묻고, 초발심을 잊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나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입교생 중 유일하게 삭발을 결행한 십지행(57) 씨는 “불교를 뒤늦게 만나 40대 초부터 신행공부를 하면서 늘 마음속에 출가와 삭발의 뜻을 품고 있었다”며 “두 딸이 반대했지만, 부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 이번엔 꼭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라며 “참선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스스로 돌보는 기회를 가지려 한다”고 전했다.

이날 출가학교에 입교한 이들은 1월 12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고불식을 봉행하고, 석좌교수 도혜 스님 특별법문(1월 13일), 자비수참(1월 14일), 행다선명상(1월 17일), 삼귀의계오계 수계식(1월 18일), 일보일배(1월 20일), 선재 스님 사찰음식특강(1월 21일), 회향식(1월 25일) 등 다양한 사찰 수행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불교 교리와 수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3기 여성출가학교에서는 ‘명상’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시간을 대폭 늘렸다”며 “국내외 혼란과 어려운 시국에서 입교생들에게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故김윤심 보살 유족, 동국대에 기금 전달

1월 16일 교내 정각원서
5000만원 장학금 보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모친 故김윤심 보살 유가족이 생전 교육 불사에 원력을 세웠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동국대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故김윤심 보살 유가족은 1월 16일 교내 정각원에서 봉행된 고인의 6재에서 동국건학장학 기금 5000만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사진〉 故김윤심 보살은 생전 교육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유가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이날 전달식을 마련했다.

돈관 스님은 법어에서 “세월이 다해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 ‘모든 것은 다 변할 수 밖에 없다’는 진리다”며 “오늘 동국대에서 재를 지낸 건 故김윤심 보살이 이 남산도량 동국대와 인연 맺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도 동국대와 좋은 인연 맺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재 기자

배아현·김소유, 복지재단 홍보대사 위촉

1월 16일 진우 스님 예방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배아현·김소유 트로트 가수를 2025년 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사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배아현·김소현 트로트 가수를 재단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복지재단은 이번에 위촉된 두 홍보대사와 함께 종단의 사회복지사업을 알리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를 ‘무애시’라고 한다. 아름다운 음성공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보시하는 것이다”며 “앞으로 복지재단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다”고 격려했다.

김민재 기자

“템플스테이, 이제 영어로도 자연스럽게”

문화사업단, 불교문화 한영 동영상
한국관광공사 관광e배움터에 게재
사찰의 하루·스님의 삶 등 4강 구성

외국인 관광객이 사찰을 방문하거나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한국 불교문화를 영어로 효과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원활한 통역을 돕기 위해 ‘불교문화 해설을 위한 한영통역 교육’ 동영상을 제작, 한국관광공사 관광e배움터에 게재했다.

해당 동영상은 △산문과 법당 △불상의 이해 △스님의 삶 △사찰의 하루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사찰의 구조와 불상, 스님들의 일상 등 한국불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영어로 통역하는 방법을 담아, 전문적인 통역 기술과 실질적인 용어 활용법을 소개한다. 특히 기존 관광통역에서 다루지 않는 불교문화 특화 용어를 반영해, 템플스테이와 사찰 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번역 방법 전달에 중점을 뒀다.

그간 관광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 절반 이상이 불교 문화재임에도 이를 외국어로 상세히 통역하고 안내할 전문 인력과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2018년부터 관광통역안내사들을 대상으로 불교문화 해설 교육을 시작했다.



관광e배움터에 게재된 불교문화 해설을 위한 한영통역 교육’ 동영상.

이번 교육 동영상은 현장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종사자들의 요청을 반영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강의는 관광통역안내사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에 관심 있는 관광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화사업단은 2025년에도 불교문화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통역 인력 양성과 교육 동영상 제작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동영상은 한국관광공사 관광e배움터(https://touredu.visitkorea.or.kr) [교육과정]-[직무강좌]-[안내/해설]-[안내해설실무]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내영 기자

“청년회 걸맞게 청년 전법에 매진”

이길수 대불청 회장 취임식
1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서



청년 불자 신행단체인 대한불교청년회 제33대 중앙회장에 이길수 전 대불청 부회장이 취임했다.〈사진〉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길수, 이하 대불청)는 1월 1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한불교청년회 제32·33대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길수 중앙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청년 전법’에 매진 할 것을 다짐했다. 이 중앙회장은 “대불청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년포교·전법’”이라며 “대한불교청년회의 이름에 걸맞게 청년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소임이다”고 밝혔다.

이어 “회장 당선 당시 중앙회장의 권한을 오직 대불청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대불청의 체계를 확립하고 지회와 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기자

점성술이나 제사 등에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불법을 배웁시다.
강남불교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10명의**
신도만 확보해도 사찰운영이 가능합니다.
강남불교대학에서 새로운 불교를 만나보세요.
강남불교대학에서 2025년 승려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강남불교대학 승려반 설명회

일 시 2025년 2월 24일(월요일) 오후3시
장 소 강남불교대학 참종사 (서초구 방배동)
참가자격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스님
점성술이나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사찰을 운영하고 싶은 스님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스님
스님이 되고 싶은 재가자

참가신청은 QR코드로 ▶
문의 02)532-0012

출강 및 통신 2025학년도 제34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전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4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5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